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강의(9) 이방의 포교사들-현각, 틱낫한, 그리고 달라이 라마

불교의 기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성, 번뇌, 반야의 삼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는 그러나 이 삼각 항목을 두고 접근법과 강조점을 달리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다양해 졌지요.

아시타시피 붓다 초기에는 두 번째 '문제'에서 출발해 세 번째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비달마와 유식은 두 번째 항목인 '문제'의 분석에 치중했고, 중론은 세 번째 '방법'으로서 '지식'의 성격과 발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을 주목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 짧고 간결한 저작이 위 제 항목 전체를 유기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 경전에 여러 차례, 여덟 번이라 했던가요, 주석하고 해석하셨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소疏>와, <별기(別記)>뿐입니다만... 그런데, 좀 아쉬웠던가 봅니다. 두 번째 '문제의 분석' 쪽에 더 깊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이장의(二障義)>라는 책을 따로 쓰셨습니다. 여기에는 <대승기신론>이 '오염된 마음(不覺染心)'의 양상이라고 지적한 '번뇌와 지적 장애(煩惱障+智障)'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잘

은 설명이 독창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목록으로만 전해졌는데, 일본의 오오츠오 에니치(横越慧日) 교수가 1939년 무렵에 오오타니(大谷)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거기 서문을 붙여 1979년에 간행했습니다. 지금 그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꼼꼼하게 읽기가 만만치 않은 저작이라 나중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병주 소설 <비림과 구름과 비>의 풍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지금 불교를 말하는 선지식들이 대체로 대승, 그 중에서도 가운데 반야의 '갈밭'과 그리고 선의 '단도직입'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법계의 여여(如如)한 실상을 노래하거나, 다음 생에 있을 정토와 니르바나의 축복을 약속해 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을 나서기 도 전에 벌써 목적지에 다 온 듯한 착각을 주기 쉽습니다. 이병주의 소설 <비림과 구름과 비>에서는 이런 '도통한 체'를 두고, '익지는 않고 꿩이다!'라고 의실스레 풍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

을 치며 공감했는데, 어디 남의 일이겠습니까. 저 또한 이 강의에서 그 유혹과 싸우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고백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가 성급하게 '해답'부터 늘어놓을 것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 전에 중생들이 처한 '상황'의 성격과, 겪는 '문제'의 실상부터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근본이 회향(廻向)되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세계 혹은 매트릭스를 벗어나야 이 중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스님네들과 선지식들이 이제까지 익숙했던 그 '올타리',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매트릭스를 좀 벗어나 주셨으면 합니다. 매트릭스를 불교 전문 용어로는 세계(世界)라고 하지요. 여기에는 한 개인이 익숙하게 보고 들은 정보, 그가 속한 그룹 안에서의 관행과 어법, 그가 의존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이라고 우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의 전통조차 지켜내기 어렵다는 파천황의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이방의 선지식들을 들자면, 현각 스님, 틱낫한 스님, 그리고 달라이 라마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현각 스님의 설법을 두어 차례 보고 들은 정보, 그가 속한 그룹 안에서의 관행과 어법, 그가 의존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 심산 토굴의 무문관과 일초지입의 화두를 끌어안고 웅장정진하고 있는데, 왜 대중적 포교의 주도권은 이들 이방의 포교사들에게 내 주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불교계의 반응은 양면적입니다. 이방인들의 포교가 불교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 고마워하지만, 그런데 또 한편, 그 역할을 정작 엉뚱하게 객이 와서 대신 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야(視)에게 인방을 내준 마나님같은 뿌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뜬 이유는, 그들의 '불교'보다 그들의 '배경'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들이 그토록 유명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는 그들의 '이력'이나 '배경'에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각 스님은 한국인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의 오랜 전쟁을 몸으로 겪고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에 의한 무력 침공으로 식민지가 되어버린 티베트의 고난과 독립을 상징하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택한 저항의 수단이 무력과 피가 아니라 불교적 관용과 타협, 그리고 끈기와 상심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유명'하는 근본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비밀은 바로 그들이 쓰는 '언어'에 있습니다. 아무려면 우리 스님네들과 선지식들의 수행력이 그들보다 모자랐겠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익기 전에 곱아서야



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주려고만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간에, 심지어 월간 안에 갇힌 실험용 쥐도, '문제'를 알면, 시키지 않아도 '길'을 찾아가고 인간됨을 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박에, "아니, 문제가 자기 자신들이 가장 잘 알겠지. 그런데 뭘 새삼 가르쳐 주고 말고 해?"라고 타박하는 선지식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가락에 난 생채기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마는, 그러나, 그 '문제'를 당사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불교가 제기하는 '문제'는 아주 미묘하고 은밀해서 당사자에게 알려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남보기에는 다 같춘 듯하면서도 '이게 아닌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그 문제의 정체가 무엇인지 무슨 돌과구를 마련해야 하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는 말이지요.

익숙한 세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는데요. 기회가 많을 테니, 다른 것은 그만 두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스님네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언어'입니다. 저는 어느 편이나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불교를 미래의 대

공, (용서하십시오) '엄청 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무엇보다 그 일상적인 대화체의 비권위적인 자세에 깊이 경복했습니다.

이 세 분 선지식들이 한국의 불교계를 강타한 현상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뜨는가. 한국불교가 수천년의 유구한 전통과 전국 곳곳의 수많은 사찰

주장사파라...

32 보덕 스님의 '그 놈'



조태호



보덕 스님: 생물연대 미상의 고구려 후기 스님. 열반종의 개조. 평양 영탑사 창건. 백제 완산주에 경복사를 지어 <열반경> 강론.

네티즌 교리문답

방하착(放下着)의 대상은?

크스님들이 가끔 방하착(放下着)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뜻이 궁금합니다. '내려놓아라' 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어떤 대상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하착')

답1: 방하착(放下着)이라는 말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또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번뇌, 갈등, 스트레스, 원망, 집착 등이 얽혀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훌훌분하게 벗어 던져버리라는 말이 방하착입니다. 엄양(嚴揚) 스님이 조주(趙州) 스님한테 가서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하고 물었습니다. 참선에서는 '한 물건'도 가지지 말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시(是)야, 비(非)야,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밍다하는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니 조주 스님께서 "봐 버려라, 방하착(放下着) 하라"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무엇을 놓을 것입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그러면 지고 거겨라" 하셨습니다. ('bubin')

답2: 위의 일화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마저 버리라는 조주 선사의 가르침을 역설적으로 잘 말해줍니다. 선문(禪門)에서는 수행의 첫 단계로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一切放下)'고 가르칩니다. 온갖 물질은 물론 생각까지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선가의 대표적 화두인 방하착(放下着)은 보다 큰 성취, 즉 깨침을 향한 철저한 자기성찰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一切放下')

답3: 말과 생각으로는 다 내려 놓았다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죽지 않으면 방하착은 말뿐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객관의 한 대상이 되었거나, 내 자신이 나의 인식에서 출연 시리져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경계가 분명하되 사랑분별, 취사선택 하는 자는 없으며, 오직 일찍이 배변 요지경이 또렷합니다. 의식에서 나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내려놓을 집입니다. 방하착(放下着)의 마지막 걸림은 나 자신입니다. 단추만한 두 눈을 잃으면, 일체 원융한 '한 눈'을 얻습니다. ('들사자')

답4: 떠오르는 좋고 나쁜 생각은 모조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심이 될 때까지... 이 말도 듣고 잊어버리세요. ('김성우')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5x15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5.

상식퍼즐

- 1. 불국사 석가탑의 다른 이름, 동명의 현전건 소설도 있음 2. 몸과 땅이 들어 아니라는 뜻 3. 모시어 받음. <광덕 스님 ○○일기>라는 책이 있음 4. 중국 감성성의 작은 도시로 천 여개의 석굴과 사원으로 유명, 혜조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이 지역에서 발견됨 5. 교학을 버리고 선 수행으로 나갑을 뜻하는 말 6.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

- 1. 재물을 갖지 않고 베푸는 일곱 가지 보시 7. 탑기단(塔基壇)과 상륜(相輪)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 탑의 몸. 8. 곁에 놓을 목적으로 그린 부처님 그림, 야외에서 법회를 열 때 많이 사용함 9. 땅끝마을의 다른 이름, 이곳이 땅끝임을 알리는 ○○탑이 세워져 있음 10. 신라의 불교 수율을 위해 목숨 바친 이 11. 경북 문경에 있는 절로 청담·성철 스님 등의 선종 중풍을 살리기 위한 결사로 유명한 곳 12. 황룡사터 13.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감 14. 종파를 창시한 종조(宗祖) 15. 선적(禪的) 깨달음을 시로 표현한 것.